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20.(목) 06:00 < 4.20.(목) 석간 > 배포 2023. 4. 19.(수)

노후산단,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로 경쟁력 강화

- 광양산단, 신평장림산단, 한국수출산단(부평·주안산단), 2023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신규 선정

- 산업단지 생산·수출 증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기대

광양국가산업단지(전남),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 부평·주안산단)가 기존의 노후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공간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18일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광양국가산업단지(전남),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 선정하였다. 이는 국정과제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부는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등 총 15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여,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산단, 신평장림산단, 한국수출산단(부평·주안국가산단)은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한 '산업단지 중심의 경쟁력강화계획'을 민간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3개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旣지정(15개) : (`19년지정) 반월시화, 창원, 인천남동, 구미, (`20) 대구성서, 광주첨단, 여수, (`21) 울산미포, 군산, 부산명지녹산, (`22) 청주, 천안, 대불, 대전, 포항

▲전라남도는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산업단지'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개발, 광양·여수

산단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 기반 구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공장 확충, 청년고용률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자립을 통한 친환경 산단으로 탈바꿈,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공원 확충 등을 통해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생산액·수출액·고용인원을 매년 상향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 대전환' 해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기업 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지원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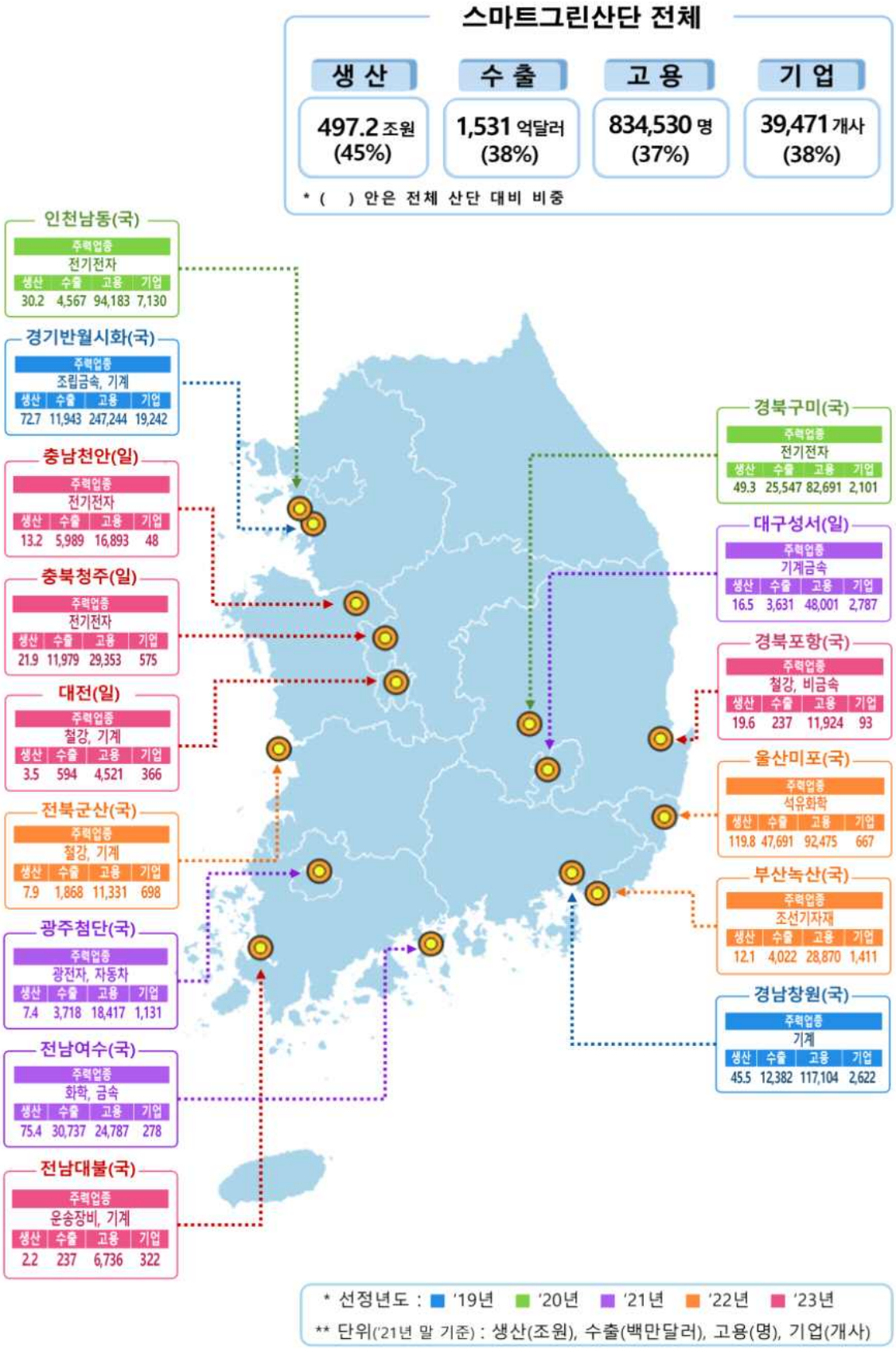
향후 산업부·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구상하는 핵심사업들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참 고】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현황(2022년 말 기준)
2. 2023년 신규 선정 산단 경쟁력강화계획(요약)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김 효 (044-203-443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김도회 (044-201-36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현황 (2022년 말 기준)**



참고 2 **2023년 신규 선정 산단 경쟁력강화계획(요약)**

전남 광양산단 지역 계획

거점단지	○ 광양국가산업단지(96,405천㎡) * 입주기업 188개사, 생산액 167,211억원, 고용 14,524명 (`22.4Q)
연계단지(3곳)	○ 율촌제1일반산단(9,107천㎡), 순천일반산단(576천㎡), 해룡일반산단(1,593천㎡)
지역여건 (추진사유)	○ 거점·연계산단은 우리나라의 철강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 등의 노후화 현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 광양산단은 국내 최대 철강산업 집적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산업 제조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연계 산단 간 금속소재산업 및 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 가능
주력산업	○ 금속, 기계, 에너지부품 (전남 제조업 25.2%, 종사자수 9.3%, 수출액 19.3% 차지)
비 전	○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
성과목표	○ 온실가스 감축 15%, 스마트공장 보급확산(360개사), 생산액 10% 향상 등
신청사업	○ 총 39개 사업 (총 6,849억원, 국비 3,856억, 지방 2,361억, 민간 632억)

3대 중점과제	실천과제(7개)	세부과제(39개) 메뉴판(중앙부처) 24개
1. 저탄소 공정혁신으로 미래 철강산업단지 구현	■ 미래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기업지원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사업,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베드 구축 사업 등 3개
	■ 미활용 자원의 재이용 촉진 및 저탄소 공정혁신	■ 수소공급망 부품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등 7개
	■ 대·중·소 협력기반 철강산업 벨류체인 강화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역선도산단 연계사업 등 2개
2.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新산업화	■ 제조업 디지털전환의 선제적 대응	■ 철강산업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 5개
	■ 디지털전환 기반의 산업현장 거점화	■ 스마트 물류 플랫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3개
3. 정주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정착으로 新산업공간 전환	■ 재난재해 Zero, 미래형 융복합공간으로서의 그린 리모델링	■ 노후산단 재생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15개
	■ 지역인재 정착 및 역량강화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등 4개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 계획

거점단지	ㅇ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2,815,005㎡) * 입주기업 701개사, 생산액 52,690억원, 고용 14,569명 (`22.4Q)
연계단지	○ (연계없음)
지역여건 (추진사유)	○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 제조업 비중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2011년 5.59%에서 2020년 5.0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또한, 2013~2022년 사이 부산광역시 제조업 취업자 수의 경우에도 감소율이 25.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4.55% 대비 크게 악화
주력산업	○ ICT기반 지능형기계 · 자동차부품(친환경차), 스마트 뿌리산업
비 전	○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성과목표	○ 최근 3년 평균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의 각 1% 이상씩 상향
신청사업	○ 총 **21개 사업(총 2,946억원, 국비 1,714억**, 지방 1,090억, 민간 142억)

4대 중점과제	실천과제(6개)	세부과제(21개) 메뉴판(중앙부처) 18개
1.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 맞춤형 미래신산업 견인 제조혁신 가속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 5개사업
	■ 산단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형 인재양성	■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양성 등 3개사업
2. 친환경 저탄소 스마트 그린산단	■ 친환경·저탄소 산단 조성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등 3개사업
	■ 친환경 에너지 통합인프라구축	■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2개사업
3. 청년이 찾는 혁신공간 조성	■ 일하고 싶은산단 조성 공간 미스매치 해소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개사업
	■ 노후 인프라 개선 경쟁력 강화	■ 재생사업, 가로환경개선 등 3개 사업

인천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 계획

거점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1,786천㎡)** * 입주기업 3,037개사, 생산액 76,461억원, 고용 23,268명 (`22.4Q)
연계단지(3곳)	○ 인천기계산단(350천㎡), 인천지방산단(1,136천㎡), 뷰티풀파크산단(2,251천㎡)
지역여건 (추진사유)	○ 2021년 인천 전체 제조기업은 33,574개사로 그 중 39.2%인 13,167개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고용의 65.8%, 61.1% 로 높은 비중 차지 ○ 최근 10년간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전산업에 비해 0.5%p 낮고, 제조업 종사자의 연평균성장률 또한 0.8%로 전산업에 비해 1.6%p 낮아 제조업 혁신 성장 필요
주력산업	○ 소재·부품 산업, 뿌리산업, 바이오헬스산업, 기계·전자·화학
비 전	○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적·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
성과목표	① 생산액 증가 1조 4천억원 ② 일자리 창출 8,000명 ③ 온실가스 감축 300,000톤 ④ 기업·근로자 만족도 85점
신청사업	○ 총 **27개 사업(총 3,250억원, 국비 2,198억**, 지방 520억, 민간 532억)

4대 중점과제	실천과제(8개)	세부과제(27개) 메뉴판(중앙부처) 19개
1.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등 3개 사업
	■ 디지털 가속화 생태계 조성	■ 통합관제센터 등 3개 사업
	■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2개 사업
2. 기업성장 사다리 생태계 조성	■ 사업화·사업재편 역량 강화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등 3개 사업
	■ 청년 창업·벤처 거점 조성	■ 산업단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3. 탄소저감 그린에너지 선도 산단 구축	■ 탄소저감 공정 전환	■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등 4개 사업
	■ 그린에너지·에너지효율화 확산	■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
4. 찾고 머물고 싶은 사람중심 공간 전환	■ 고용친화 공간 탈바꿈	■ 재생사업 등 5개 사업
	■ 근로환경 개선	■ 스마트가든볼 설치 등 3개 사업